

코로나19 감염 피해 지원방안 마련

신협, 최대 1년동안 1000만원 이내 무이자 신용대출 지원 피해자 대상 공제로 납입유예·약관대출 이자 납입유예 등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가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를 살리기 위한 지원 방안을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코로나 19 감염사태 확산에 따라 지역경제 및 감염피해자를 위해 △무이자 신용대출 지원 △기존 납입유예 이자 지원 △공제로 납입유예 △약관대출 이자 납입유예의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신협사회공헌재단에서는 감염증 확산 저지를 위해 위기 지역에 △마스크 20만개 △손세정제 10만개를 지원한다.

먼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에 따

른 피해 사실이 확인된 자영업자에게 최대 1년간 1,000만원 이내로 무이자 신용대출을 지원한다. 대출상품은 신협 더불어사회나눔지원대출로 금리 4%의 대출상품이지만 대출이자는 전국 신협 및 임직원의 기부로 이뤄진 우리나라 최초의 기부협동조합인 신협사회공헌재단이 전액 지원한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에 따른 피해 사실이 확인된 자영업자의 기존대출에 대하여 신협사회공헌재단에서 연1.5%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한다. 최초 대출금액 2억원 이내의 담보대출(피해 사업장 담보 또는 피해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담보에 한

함)을 대상으로 대출 잔여기간(최장 6개월)동안 지원한다.

세 번째로, 코로나19 감염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협 공제로 납입유예 및 약관대출 이자 납입유예를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피해를 입은 공제계약자 및 그 가족이 지원 대상으로, 공제로 납입 및 공제계약(약관)대출 이자납입을 유예하는 등 직접적인 피해 또한 6개월간 지원한다.

네 번째로, 신협사회공헌재단에서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마스크 20만장(대구 청운신협 10만 장 기부) △손세정제 10만 개를 기부한다. 신협사회공헌재단이 기부하는 마스크 20만 장 중 10만 장은 대구경북 지역에 우선 지원되고, 10만 장과 손세정제 10만 개는 질병관리본부 등을 통해 위기지역민과 소외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신협의 따

뜻한 나눔의 손길이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사회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신협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앞장서서 시민과 지역사회를 수치가 아닌 가치로 어부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신협중앙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설명절 연휴 중 중앙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회를 가동하고, 전 임직원과 조합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예방수칙을 안내하는 등 비상대응체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25일 신협중앙회 제47차 정기대의원회는 최초로 서면결의로 대체했으며 조합 총회 등 집회 개최를 연기하거나 최소화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확진자 동선과 가까이 위치한 신협 지점을 일시 폐쇄하는 등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이달부터 6개월간 30%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 전북은행, 자사 보유 건물에 한해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자사가 보유한 건물의 임대료를 오는 3월부터 6개월간 30% 인하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일명 '착한 임대료 운동'이다.

이 조치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취지다. 지원대상은 총 15개 업체로 이들 업체는 6개월간 약 1500만원의 임대료 부담을 덜게 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보유한 임대건물이 많지 않지만 조금이나

마 도움이 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며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임대료 인하 운동이 코로나 19 극복 등 지역 상권 살생을 위해 더 많은 착한 임대료 물결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2월 4일부터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개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은 최대 5억원, 개인은 최대 1억 원까지 금융 지원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코로나19 피해 중기·소상공 지원

중기중앙회, 이달 1일부터 공제 가입업체 부금 납부 유예·대출 만기 연장 시행

중기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피해 확산에 따라 3월 1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및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등 공제사업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 만기연장과 부금납부를 3개월 유예한다(지난달 28일 밝혔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인 노란우산은 지난 2월 13일부터 대출 이자율을 3.4%에서 2.9%로 0.5%p 인하한 데 이어, 3월 1일부터는 고객 신청 시, 부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하는 추가 지원을 실시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3월 1일부터 만기 도래 대출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원금 상환 없이 만기를 연장할 계획이며, 코로나19 피해 업체에 대해서는 부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해준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중기중앙회도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고객 응대와 관련하여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3월 말까지 가입고객의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며(필요시 연장), 원활한 신청을 위해 지원절차를 간소화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고객센터(1666-9988) 및 전국 18개 지역본부(공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중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합동브리핑(기재부, 행안부, 산업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기부)을 열고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 및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코로나 추경, 6조2000억 이상 검토... 국회 제출”

정부,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 민생·경제 종합대책 발표

홍남기 부총리 “임여금 최대한 동원... 부족하다면 적자 국채 발행 불가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사업의 규모는 세출 예산 기준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6조2000억원보다 적지 않은 규모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 및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 대책’을 발표하기 위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추경 예산안을 조속히 편성해 다음주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5년 당시 추경안 중 세출 확대를 위한 예산은 6조2000억원이었다. 여기에는 전월별 대응 예산과 함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1조5000억원과 가뭄·장마 대응을 위한 8000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나머지 5조6000억원은 세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한 세입경정 예산이었다.

홍 부총리는 “지역사회 전파 등 코로나19의 확산세가 3월까지 지속되지 않을까 예상된다”며 “정부로서는 큰 틀에서 그 이후에는 방역 정책을 통해 경제가 회복되는 단계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바램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기재부를 포함한 관계 부처들은 추경 예산에 포함시키기 위한 사업을 발굴·검토하는 중이다.

홍 부총리는 최종적인 추경 규모와 관련, “사업 발굴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며 “규모를 정해두고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필요한 사업이 들어갈지 알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발굴된 사업을 검토하는 작업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추경 규모가 11조원을 조금 넘었는데, 그중 세출 사업이 6조2000억원이었다”며 “현재 경제 상황이 적어도 메르스 사태 때보다는 엄중하다는 인식을 고

려하면 세출 사업 규모 자체는 메르스 추경 때보다 더 크게 선정돼야 한다는 큰 원칙을 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에는 세입 경정을 위한 예산도 일부 함께 반영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결국 최종 규모는 홍 부총리가 언급한 6조2000억원보다 얼마나 커질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홍 부총리는 추경 재원과 관련, “세계 인여금, 한국은행 인여금 등 동원할 수 있는 인여금을 최대한 동원하겠지만, 이로 부족하다면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면서 “국가 채무가 일부 늘어날 수 있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채무가 증가한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몇조원이 늘어나더라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며 “이로써 경기가 회복돼 세입이 정상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다가오는 영농철, 농기계 사전점검을”

농진청, 녹슨 부분 기름칠·윤활유 필요한 곳에 주입 등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지난달 28일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안전사고와 고장을 예방하기 위해 농기계 사전 점검과 정비를 당부했다.

우선 농기계에 쌓인 먼지와 흙을 털어내고 녹이 스는 부분은 기름칠을 해주는 것이 좋다.

윤활유는 정기점검 목록에 따라 필요한 곳에 주입하며, 각 부위의 볼트, 너트가 풀린 곳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브레이크, 클러치 페달은 부품 간 움직임이 정해진 범위가 되도록 조정하고, 좌우가 같은지도 확인한다.

또한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도 함께

점검한다. 배터리는 윗면의 점검창에서 충전 상태를 확인하고, 단자가 부식됐거나 흰색 가루가 묻어 있으면 깨끗하게 청소 후 그리스를 바른다. 엔진 및 미션 오일의 양과 상태를 점검한다.

오일 게이지를 확인해 부족하면 보충하고, 오일 색이 검거나 점도가 낮으면 교환한다.

냉각수는 새는 곳은 없는지, 양은 적당인지 확인해 부족하면 보충하고 변색 정도가 심하거나 부유물이 많을 때에는 교환한다.

에어클리너는 건식일 경우 필터의

오염 상태를 봐서 청소하거나 교환하고, 습식은 경유나 석유를 이용해 닦는다. 각종 전기배선과 접속부, 전구, 퓨즈 등은 이상이 있으면 교환하고, 시동을 걸어 정상적으로 작동되면 3~4분간 난기운전을 한다.

농기계 관리와 정비요령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포털 농사로(www.nongsaro.go.kr)의 ‘농기계→농기계→농기계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농협 등에서도 순회 수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해 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 재해예방공학과 신승엽 과장은 “농사 시작에 앞서 농기계를 정비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기계 수명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진짜 취업 적임자 위한 ‘청년전북 취업디딤돌’ 도·경진원, 구직자 모집 만 39세 이하 청년 대상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도내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성공을 밀착 지원하기 위한 ‘청년전북 취업디딤돌’ (이하 취업디딤돌)사업에 참여할 청년 구직자를 모집한다.

취업디딤돌 사업은 전북도일자리종합센터의 구직자 지원사업을 우선지원, 우선접수와 단독지원함으로써 구직 청년이 자기주도적 취업경로를 설정하고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 18세부터 39세 이하에 해당하는 도내 미취업·창업 상태의 청년구직자 100명을 선정해 밀착 지원한다.

취업디딤돌 사업 참여자는 자격증 취득지원사업, 면접사전활영지원, 청년구직자 성공정착지원사업 등의 우선지원(총 110건)과 우선접수 1일(NCS 특화교육), 단독지원(소규모 맞춤형 면접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전북도일자리종합센터는 구직자 취업준비 비용 경감과 취업·근속을 위해 면접비 지원사업, 경호·경비교육, 기능우수인력도내 중소기업 취업 지원사업 등을 운영하여 높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도내 업체의 구인난 해소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다.

청년전북 취업디딤돌 사업은 4월 30일까지 선착순 100명에 한해 접수 및 선발 예정이며, 모집과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일자리종합센터(www.1577-0865.or.kr, 문의전화 280-4126)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3월 도내 중기 경기전망지수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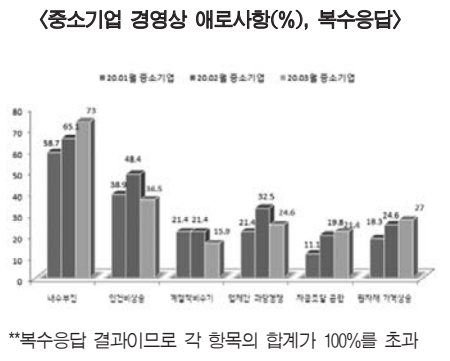
0.4p 하락한 79.4p... 경기회복 지연에 코로나19로 꼬임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조지훈)가 지난 2월 14일부터 21일까지 전북지역 소재 126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3월 전북지역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3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0.4p 하락한 79.4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제조업의 업황 전망 상승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 지연에 코로나19 사태와 ‘건설업’,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의 하락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3월 경기전망은 전월보다 제조업(82.9)은 3.6p 상승, 비제조업(75.0)은 5.4p 하락했다. 특히 서비스업의 경우 ‘19년 12월(98.0) 이후 24.0p 하락한 74.0로 전망됐고, 건설업도 83.3로 전월보다 8.4p 동반 하락했다.

영업이익(78.2~77.4)을 제외한 내수



판매(79~79.8), 수출전망(75~95.8)은 전월대비 상승했고, 역계열인 고용수준(96.0~95.2) 전망은 0.8p 소폭 하락해 다소 개선된 것으로 전망됐다.

3월의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복수응답) 응답을 살펴보면 ‘내수부진’(73.0%), ‘인건비 상승’(36.5%), ‘원자재 가격상승’(27.0%), ‘업체간 과당경쟁’(24.6%), ‘자금조달 곤란’(21.4%), ‘계절적 비수기’(15.9%) 순으로 나타났다. /김윤상 기자

도·경진원, 소상공인 경영개선 컨설팅 지원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도내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의 경영위기 및 애로해결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개선 컨설팅’ 사업을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나 예비창업자이며, 광업·제조업·운수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도 신청 가능하다.

소상공인 경영개선 컨설팅은 마케팅, 회계·세무, 인사·노무, 사업화전략 등 총 18개의 분야로 예비창업자, 소상공인과 전문 컨설턴트 간 1:1 맞춤형 상담 서비스 지원사업이다. 컨설팅은 2회 진행되며, 회당 3시간 이상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경진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도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진 만큼 제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시기를 앞당

겼다. 컨설팅은 예산소진 시까지 수시로 모집하며,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가 심각한 만큼 빠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경진원 조지훈 원장은 “신종코로나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들이 컨설팅을 통해 자생력을 강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개선 컨설팅은 전라북도 소상공인 희망센터 홈페이지(www.jbsos.or.kr)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063-717-130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